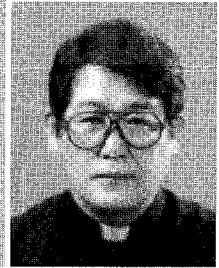


민통련 활동을 회고하며



전 민통련 경남지부 사무국장 김영식 (알레시오)

천주교 정의구원사제단, 경남교구 하동 삼갈공소 봉의
(김영식 신부님은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심, 이 글은 경남 민통련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구술하신 내용임.)

민통련 경남지부가 결성되고 난 뒤
여러 사람들이 사무실 안팎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지금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어도
모두들 반독재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열심히 싸웠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다치고 감옥에도 끌려갔다.
그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민통련이 출범하던 1985년 당시 나는 창원 양곡성당에서 시무하고 있으면서 천주교정의구원사제단(사제단)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통치는 극에 달해 있었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반독재민주화 세력도 차츰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던 시기였다. 서울에선 민청련과 같은 투쟁 조직이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1984년으로 기억하는데 매달 서울에서 열리던 전국 사제단 모임에 참가하니 민통련 조직을 준비하던 쪽에서 나와서, 민통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금과 같이 탄압이 심한 시기에 신부님들이 '총대'를 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사제단에는 나의 신학교 시절 은사인 고 김승훈 신부님도 계셨는데 김승훈 신부님은 민통련 모임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

당시 경남에서는 나와 이응석 신부님, 이렇게 두 명만이 사제단에 관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사제단 모임은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신부들의 모임일 뿐이었다. 이응석 신부님과 의논 끝에 경남에서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울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마산에서 민통련을 시작하려고 하니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 당시 마산과 창원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부터 배출된 역량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사회운동 단체도 없었다. 교회 주변에 지오세(가톨릭노동청년회)나 가톨릭대학생연합회, 가농(가톨릭농민회) 등이 있었지만 아직 민통련 같은 공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역량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마산에 있던 기독교장로회 한교회의 정호진 목사를 만나 의논하게 되었다. 당시 한교회에는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청년들이 다수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호진 목사를 통해 반정부 투쟁을 하다 감옥을 갔다 온 유경호를 만나면서 민통련 조직화는 빨리 진척이 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마산과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응석 신부님이 대표로 '총대'를 매어 민통련 경남지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민주화운동 단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마산에서 민통련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때 문 목사님은 민통련 지부 모임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당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구속됐던 부산약대 출신의 최인순 씨가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그 최인순 씨를 면회했던 일이다. 강연회를 마친 문 목사님은 경찰이나 정보기관 모르게 우리 성당에서 주무셨다. 다음 날 아침에 마침 우리 성당 신자들이 마산교도소에 가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신자들이 문 목사님에게 같이 가시겠느냐고 불으니 같이 가겠다고 하였고, 문 목사님은 양곡성당 교우 이름을 빌려 신자들과 함께 마산교도소로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당시 그곳에서 복역 중이던 최인순 씨를 면회하고 위로했다. 문 목사님이 최인순 씨를 만나고 있는 중에 정보기관에서 이를 알아차렸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당시 마산교도소 소장과 직원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문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오던 정보 당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었다.

민통련 경남지부의 초기 활동으로 우선 기억나는 것은 백기완, 송기숙, 이부영 등 유명 재야 인사들의 초청강연을 매달 개최했던 것이다. 민통련 이름으로 주최를 하면 방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제단의 이름으로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주로 강연회를 열었다. 사제단의 이름으로 연 강연회였지만 실무적인 준비는 모두 민통련에서 하였다. 당시만 해도 언론이 막혀 있던 상황이라 강연회는 청년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당시 제기되었던 전국적인 이슈들을 지역에 선전해 내고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 지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민통련 경남지부가 발족되고 난 뒤 얼마 후 나는 거제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제에 도착하니 주교님으로부터 나와 이응석 신부님에게 금족령이 떨어져 있었다. 성당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자숙하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시절이 시절인지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면 이를 어기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곤 했다. 주교님도 다 알고 아마 눈감아 주셨을 것이다.

민통련 경남지부의 첫 사무실이었던 마산 추산동 사무실 시절, 한번은 노무현 변호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창원공단의 주식회사 통일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있던 문성현 씨의 변론을 맡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일로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 같다. 당시 사무실은 2층이었고 1층에는 경찰이 상주하다시피 지키고 있었는데, 사무실로 올라온 노무현 변호사가 밑에 있던 경찰들 주변에 작은 돌맹이를 던지면서 경찰들을 호통을 쳐 멀리 쫓아 보내버린 일도 있었다. 당시 인권 문제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변호했던 노 변호사의 기개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다.

민통련 경남지부가 결성되고 난 뒤 여러 사람들이 사무실 안팎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상근 간사로 활동했던 유경호 배설남, 임지혜, 박성원을 비롯해 전창현, 이상걸, 공명옥 등 공식 직책을 맡지 않고도 열심히 했던 이들도 여럿이다. 지금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어도 모두들 반독재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열심히 싸웠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다치고 감옥에도 끌려갔다. 한 달에 5만원도 채 안되는 돈으로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불철주야 뛰어 다녔던 그들에게 지금도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그들의 투쟁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리 _ 박성원 당시 민통련 경남지부 간사